

태국어의 동사구 구조에 관한 연구*

정 환 승**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태국어의 동사구의 구문론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구조와 의미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다. 태국어에서 동사의 구문론적 특성은 개별동사의 특성 또는 동사의 앞성분과 뒷성분과의 결합관계에서 드러난다. 태국어에서는 동사가 그 앞과 뒤에 나타나는 다른 주요 성분들과 결합하여 동사구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의미적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태국어의 동사구 구조와 의미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동사가 그와 더불어 나타나는 앞성분과 뒷성분과의 어울림 관계를 분석하는 일은 태국어에서 문장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동사가 문장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의 전체적인 모습을 개념화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구문 형성에 일정한 골격을 이루기 때문

* 이 연구는 200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조교수. junghs@hufs.ac.kr

이다. 어형의 변화가 없는 태국어에서 단어가 문장 안에서 갖는 기능이나 다른 성분과의 문법적 관계는 주로 어순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동사구를 이루는 성분들이 어떠한 순서로 배열되는가,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구조와 의미는 어떠한 관계를 갖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태국어 학습에 있어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태국어의 동사구의 구성성분을 알아보고 이들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지는 동사구가 어떠한 형태로 시제와 상 그리고 양상을 나타내는가를 분석하고 타동사 구문에서 나타나는 목적어의 형태와 동사의 상관성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사구의 핵심성분인 머리동사의 개별적 특성과 그 앞과 뒤에 위치하면서 동사구를 형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 결합관계와 의미구조와의 상관성을 밝혀내게 될 것이다.

II. 동사구의 구성성분

태국어의 동사구는 하나 이상의 동사 또는 동사와 그 수식어가 결합하여 문장 안에서 자동사와 타동사 그리고 이중 목적어의 동사의 기능을 담당한다. 태국어의 동사구는 핵심 기능을 하는 머리 동사부와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동사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 그리고 수식어구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¹⁾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태국어의 동사구에 대한 형태적 측면에서의 기술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태국어의 고립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주의 문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위전(วิจิตรนันทน์ 2527)과 정환승(2002)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1. 머리 동사(หน่วยแก่น)

머리동사는 동사구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자동사, 타동사, 이중 목적어 동사, 동사 선행어, 동사 후행어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중에서 동사 선행어와 동사 후행어는 홀로 사용되지 못한다. 태국어의 머리 동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 | | |
|-------|----------------------------|--|
| (1) a | กิน
กิน
먹다 | เริ่ม สนใจ ฝึก
름 쓴짜이 ฝึก
연습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다 |
| b. | มา เรียน
마 리안
배우러 오다 | คืน ไป
큰 빠이
돌려 주다 |
| c. | ไป เห็น มา
놀러갔다 오다 | มา ดู เสีย
와서 봐라 |

위의 (1a)는 동사 한가지로만 이루어진 동사구의 예이며²⁾ (1b)는 동사 선행어와 동사, 또는 동사와 동사 후행어가 결합된 형태이다. 또한 (1c)는 동사 선행어와 동사 그리고 동사 후행어가 결합된 머리동사의 예이다. 이와 같이 기술된 머리동사의 형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 머리동사 → (동사선행어) 동사 (동사후행어)

2) 태국어에서 동사는 네 개까지 결합하여 하나의 단일 동사로 기능할 수 있다.

2. 동사 선행 요소(หน่วยช่วยกริยาหน้าหน่วยแก่น)

동사선행요소는 머리동사의 앞에 나타나는 동사구의 구성성분으로 전치 조동사와 부정소 **ไม่/ไม**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동사 선행 요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 | | | | |
|-----|----|-------------------------------------|---|---|
| (3) | a. | เคย
크어이
...적이 있다 | กำลัง จะ
깜랑 짜
막...중이다 | คง จะ เพิ่ง เคย
콩 짜 풍 크어이
아마 막...적이 있을 것이다 |
| | b. | ไม่เห็น
마이 헨
보지 못하다 | ไม่ ชอบ
마이 칩
좋아하지 않다. | |
| | c. | ไม่เคย
마이 크어이
...적이 없다 | คง จะ ไม่
콩 짜 마이
아마...이 아닐 것이다 | ไม่ อาจ จะ
마이 앓 짜
...할 수 없다 |

위의 (3a)는 전치조동사로만 구성된 동사선행어의 예이며³⁾ (3b)는 부정소 **ไม่/ไม**가 동사와 결합하여 사용된 예이고 (3c)는 전치조동사가 부정소와 결합된 예이다. 이러한 동사선행어의 형태를 도식화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동사선행요소 → (부정소) 전치조동사 (부정소)

3) 태국어의 전치 조동사는 네 개까지 중첩하여 나타날 수 있다.

3. 동사 후행 요소(หน่วยช่วยกริยาหลังหน่วยแก่น)

동사후행요소는 머리동사의 뒤에 나타나는 동사구의 구성성분으로 후치 조동사 **อยู่/유/** **แล้ว/래우/** **อยู่แล้ว/유래우/**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 | | | | |
|--------|------------------------------|------------------------------------|-----------------------------------|
| (5) a. | เรียน อยู่
리안 유
배우고 있다 | คิด อยู่
킷 유
생각 중이다 | ทำงาน อยู่
탐응안 유
일하고 있다 |
| b. | ไป แล้ว
빠이 래우
갔다 | พูด แล้ว
풋 래우
말했다 | เขียน แล้ว
키안 래우
썼다 |
| c. | ดี อยู่ แล้ว
디 유 래우
좋다 | ชอบ อยู่ แล้ว
츙 유 래우
좋아하고 있다 | ดี้น อยู่ แล้ว
든 유 래우
깨어 있다 |

위의 (5a)는 후치조동사 **อยู่/유/** (5b)는 **แล้ว/래우/** 그리고 (5c)는 **อยู่แล้ว/유래우/**가 사용된 예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동사후행요소의 형태를 도시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동사후행요소 → 후치조동사

4. 수식어구(หน่วยขยาย)

수식어구는 머리동사의 뒤에 나타나는 동사구의 구성성분으로 부사와 안긴 장소부사구 또는 안긴 시간 부사구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⁴⁾

4) 안긴 부사구라 함은 동사구 안에서 머리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를 말한다.

- (7) a. **จั่ง** **เก่ง จั่ง** **น้อย มาก ที่เดียว**
 짱 꺽 짱 너이 막 티디어우
 매우 매우 잘 매우 적게
- b. **จาก ต้น** **แต่ เข้า** **(อยู่) ที่อเมริกา ๒ ปี**
 짝 푼 때 차오 유 티아메리카 썸 삐
 나무에서 아침 일찍 미국에서 2 년 (있다)
- c. **(นอน) สบาย** **ที่บ้าน** **ทั้งคืน**
 년 싸바이 티반 탕큰
 밤새 집에서 편히 (잤다)

위의 (7a)는 각각 하나에서 세 개까지의 부사로 구성된 수식어구의 예이며 (7b)는 안긴 장소부사구와 안긴 시간부사구의 예이다. (7c)는 안긴 부사구와 부사가 결합한 예이다. 이러한 가능한 수식어구의 결합 형태를 도식화하면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 (8) a. 수식어구 → 부사 (안긴 장소부사구)(안긴 시간부사구)
 b. 수식어구 → 안긴 장소부사구 (안긴 시간부사구)(부사)
 c. 수식어구 → 안긴 시간부사구 (부사)

태국어의 동사구는 앞에서 기술한 그 구성성분들이 임의적으로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 (9) a. 동사구 → (동사선행요소) 머리동사 (동사후행요소)(수식어구)
 b. 동사구 → (동사선행요소) 머리동사 (수식어구)(동사후행요소)

Ⅲ. 시제와 상

시제(tense)와 상(aspect)은 일반적으로 동사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문법범주이다. 태국어에서 시제의 의미는 대부분 상적인 의미를 아울러 갖게 된다. 본장에서는 태국어의 시제와 상에 대한 의미분석과 기술을 통해 이를 나타내는 동사구의 구조와 의미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1. 태국어의 시제구분

시제란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화 내용 안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표현하는 것으로 단순한 자연 시간(time)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서구의 전통문법에서는 현재시제, 과거시제, 미래시제의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제구분이 모든 언어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없다는 논의도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Lyons 1968:306). 기존의 태국어 시제구분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삼분법으로 구분하여 왔으나 시간표현과 시제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못한 면이 있다.⁵⁾

1) 현재시제

현재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태국어에서는 특별한 표지가 없다.

(10) a	(ตอนนี้)	เขา	ไป	โรงเรียน
	떠나	카오	빠이	룽리안

5) 갑차이 (กำชัย ทองหล่อ 2540:246-250) 프라야옘빠깃씬라빠싼(พระยาอุปทิศศิลปสาร 2533: 135-136) 등의 전통문법 학자들의 시제 기술을 보면 시간부사어에 의해 표현되는 시간(time)과 문법적 틀에 의해 표현되는 시제(tense)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 가다 학교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

b. เมื่อกััน เขากา ไป โรงเรียน
므어끼니 카오 빠이 룡리안
좁전 그 가다 학교
조금 전에 그는 학교에 갔다.

c. พรุ่งนี้ เขากา ไป โรงเรียน
프룽니 카오 빠이 룡리안
내일 그 가다 학교
내일 그는 학교에 갈 것이다.

위의 예문 (10a)는 현재, (10b)는 과거, 그리고 (10c)는 미래의 시간 표시를 나타낸다. 이때 태국어 특성상 동사 **ไป/빠이**의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 이를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예문 (10a)의 경우에는 현재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구의 유무에 상관없이 현재시간을 표시하지만 현재, (10b)의 경우에는 **เมื่อกััน** 므어끼니라는 과거시간부사어에 의해 과거시간을 표시하는 것이며 (10c)는 **พรุ่งนี้**/프룽니라는 미래시간부사어를 통해서 미래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국어에서 과거나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특별한 문법요소 없이 동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문장의 시제는 현재시제로 보아야 한다. 이는 동작성 동사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격의 동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1) a. แดง มี รถ ๓ คัน
댕 미 롯 쌌 칸
댕 있다 차 셋 [수량]
댕은 차가 세 대 있다.

b. กรุงเทพฯ เป็น เมืองใหญ่
끄룽텡 췌 므영아이

방콕 이다 대도시
방콕은 큰 도시이다.

- c. เมืองไทย ร้อน
므엥타이 런
태국 답다
태국은 답다.

위의 예문 (11a)는 존재사 มี/미가 사용된 예이며 (11b)는 지정사 เป็น/뻬이, 그리고 (11c)에서는 상태성 동사 ร้อน/런이 사용된 예이다. 이들은 모두 현재시간을 나타내는 특별한 문법요소 없이 동사만으로 현재시간을 표시하는 문장들이다. 따라서 태국어에서 동사가 단독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간 표현은 현재시간 밖에 없으므로 동사의 단독 사용 그 자체를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장치로 볼 수 있다.

2) 과거시제

과거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 일어난 사건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태국어에서는 과거시제 조동사 แล้ว/래우를 써서 나타낸다.

- (12) a. (เมื่อวาน) เขา ได้ ค้นพบ หนังสือ
므어완 카오 다이 콘폼 낭쓰
어제 그 -되다 찾다 책
그는 어제 책을 찾았다.

- b. (เมื่อวาน) ตำรวจ มา แล้ว
어제 경찰 오다 [과거]
므어완 땀루엣 마 래우
어제 경찰이 왔다.

c.	เมื่อวาน	ฝน	ตก	หนัก
	며어완	폰	똑	낙
	어제	비	떨어지다	무겁다
	어제 폭우가 내렸다.			

위의 예문은 과거시간을 표시하는 문장들이다. (12a)는 **ได้/다이**라는 조동사에 의해 과거시간을 표시하는 것이고 (12b)는 **แล้ว/래우** 라는 조동사에 의해 과거시간을 표시한 것이다. 반면에 (12c)는 **เมื่อวาน/며어완**이라는 과거시간어를 통해 과거시간을 표시하는 것으로 앞의 두 경우와는 다르다. 여기에서 일단은 **ได้/다이**와 **แล้ว/래우**를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장치로 검토해볼 수 있다. 그러나 **ได้/다이**와 **แล้ว/래우**는 다소 그 성격이 다르다.

(13) a.	พรุ่งนี้	เขา	จะ	ได้	ค้นพบ	หนังสือ
	프룽니	카오	짜	다이	콘폼	낭쓰
	내일	그	[미래]	-되다	찾다	책
	그는 내일 책을 찾을 것이다.					

b.	*/พรุ่งนี้	ตำรวจ	จะ	มา	แล้ว ⁶⁾
	프룽니	땀루엇	짜	마	래우
	내일	경찰	[미래]	오다	[과거]
	내일 경찰이 올 것이다.				

위의 예문(13a)는 앞의 예문(12a)에 미래시간을 표시하는 **จะ/짜**를 삽입한 것이며 예문(13b)는 (12b)에 역시 같은 **จะ/짜**를 삽입한 문장이다. 그런데 예문 (13a)는 정문인데 비해 예문(13b)는 아주 어색한 문장이 되거나 비문이 된다. 이는 곧 **ได้/다이**는 순수한 과거시간을 표현하는 조동사가 아니라는

6) 문장 (13b)는 이따금 구어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때 **แล้ว/래우** 뒤에는 조사 **นะ/나**가 따라 붙는데 이는 강조용법으로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แล้ว/래우**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중이며 반면에 แลว/래우는 과거시간을 표시하는 문법장치임을 나타내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위의 예문 (12a)와 (13a)에서 보면 태국어의 ได้/다이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라기 보다는 “~(하)게 되다”(get to)의 의미를 나타내는 양상 조동사(modal auxiliary)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 있어 보인다. 따라서 태국어에서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장치는 แลว/래우/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⁷⁾

3) 미래시제

미래시제는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 이후에 일어날 날 사건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태국어에서는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 จะ/짜 또는 กำลังจะ/깜랑짜를 써서 나타낸다.

(14) a. (อีกสักครู่) แม่ จะ ไป ตลาด
 익씩크루 매 짜 빠이 딸랏
 잠시 후 엄마 [미래] 가다 시장
 잠시 후 어머니는 시장에 갈 것이다.

b. แม่ กำลัง จะ ไป ตลาด
 매 깜랑 짜 빠이 딸랏
 엄마 [진행] [미래] 가다 시장
 어머니는 막 시장에 가시려고 하는 중이다.

c. พรุ่งนี้ ไป ตลาด
 프룽니 빠이 딸랏
 내일 가다 시장
 내일 시장에 갈 것이다.

7) 태국어의 แลว/래우가 일차적으로 완료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간의 선후관계를 나타내므로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위의 예문 (14a)는 미래시간을 나타내는 조동사 **จะ/짜**로 인해 미래시간을 표시한 것이고 (14b)는 조동사 **จะ/짜**가 진행상을 나타내는 조동사 **กำลัง**/감탕과 결합하여 근접 미래시간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14c)는 **พรุ่งนี้**/프룽니라는 미래시간 부사어에 의해 미래시간이 표시된 예이다.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동사 **จะ/짜**는 항상 미래시간을 표시하는 문법 요소이므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장치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태국어의 시제는 동사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현재시제를 나타내며 과거시제는 조동사 **แล้ว**/래우에 의해서 그리고 미래시제는 조동사 **จะ/짜**에 의해서 나타낸다. 태국어의 시제 체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5) 태국어의 시제구분과 동사구의 구조

시제구분	동사구 구조
현재	Verb
과거	Verb+แล้ว
미래	จะ+Verb กำลังจะ+Verb

2. 태국어의 상

상(aspect)은 시제와 함께 동사에 표현되는 문법 범주로 한 사건이나 상태가 시역 안에서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낸다.⁸⁾ 태국어의 상적 표현은 태국어 체계에서 동사와 관련된 중요한 문법형태 중의 하나이다.

8) Lyons(1968:313)에 따르면 상은 원래 러시아어와 슬라브어에서 완료상과 미완료상을 구분하는 데서 생겨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언어에서 그러하듯이 태국어에서도 상은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나누어 진다.

1) 완료상의 의미와 형태

완료상은 사건이나 상태가 시간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문법범주를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국어의 완료상은 과거시제와 같은 형태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를 사건이나 상태가 발생한 시간적 위치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과거시제가 되지만 동작이나 상태가 종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완료상으로 볼 수 있다.⁹⁾

(16) a. เขากินข้าวแล้ว
 카오 탄 카우 래우
 그 먹다 밥 [완료]
 그는 밥을 먹었다.

b. เขากินขนมปังแล้ว
 카오 풍 탄 카우 래우
 그 방금 먹다 밥 [완료]
 그는 방금 밥을 먹었다.

위의 예문 (16a)는 일차적으로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장 안에서 기술되고 있는 사건, 즉 ‘그가 식사를 한 것’은 문장 (16a)를 발화한 시점보다 앞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적 위치보다 ‘먹는 동작’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완료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문 (16b)에서처럼 **เพิ่ง/풍**이라는 조동사를 삽입하게 되면 완료라는

9) 한국어의 “았”도 태국어의 **แล้ว/래우** 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서정수 1996:128-129 참조).

상적 의미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¹⁰⁾ 태국어의 **แล้ว**/래우/ 구문이 잠재적인 완료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 (17) a. **แม่** **ทำ** **ขนม**
 매 탐 카눔
 엄마 만들다 과자
 어머니는 과자를 만드신다.
- b. **แม่** **ทำ** **ขนม** **แล้ว**
 매 탐 카눔 래우
 엄마 만들다 과자 [완료]
 어머니는 과자를 만드셨다.
- c. **แม่** **กำลัง** **ทำ** **ขนม** **อยู่**
 매 감랑 탐 카눔 유
 엄마 [진행] 만들다 과자 [진행]
 어머니는 과자를 만들고 있다.

위의 예문 (17a)는 어머니가 과자를 만든다는 현재시간을 표현하고 있는데 비해 예문 (17b)는 어머니가 과자를 만들고 있는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고 예문 (17c)는 과자를 만드는 동작이 지속 또는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예문 (17b)의 기술 내용이 (17a)나 (17c)와 서로 대립되는 것을 보더라도 태국어의 **แล้ว**/래우/가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국어의 후치조동사 **แล้ว**/래우/는 시간부사어와 어울려 각기 현재완료, 과거완료 그리고 미래 완료상을 나타낼 수 있다.

한편 태국어에서 **แล้ว**/래우/와 같은 문법 요소가 아닌 일반 동사 중의 일부가 부동사로 사용되면서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¹¹⁾

10) 단순과거를 나타내는 **แล้ว**/래우/와 완료상을 나타내는 **แล้ว**/래우/는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다른 기능을 하는 별개의 문법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를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요소 **แล้ว**¹으로 그리고 후자를 완료상을 나타내는 문법요소 **แล้ว**²로 구분하여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8) a. **น้อย อ่าน หนังสือ จบ (แล้ว)**
 너이 안 낭쓰 줍 [완료]
 너이 읽다 책 끝나다
 너이는 책을 다 읽었다.
- b. **แดง ทำ การบ้าน เสร็จ (แล้ว)**
 แดง 탐 간반 췌 래우
 แดง 하다 숙제 끝나다 [완료]
 แดง 숙제를 다 했다.

위의 예문 (18a)에서는 부동사 **จบ/줍**에 의해서 그리고 (18b)에서는 부동사 **เสร็จ/췌**에 의해서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주동사가 행한 동작의 결과나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동사에는 **หมด/뭏/ จบ/줍/ เสร็จ/췌/ หาย/하이/ หัน/탄/ หลับ/랍/ พบ/प्/ ตก/ต๊/ พ้น/폰/ เสีย/씨야** 등과 같은 결과상 부동사와 **เข้า/카우/ ออก/억/ ขึ้น/퀸/ ลง/룽/ ไป/빠이/ มา/마** 등과 같은 방향 부동사, 그리고 **ได้/다이/ เป็น/뻐/ ไหว/와이** 등과 같은 가능 부동사 등이 있다.¹²⁾

- (19) a. **เดี๋ยวนี้ ฉัน เข้าใจ (แล้ว)**
 디어우니 찬 카오짜이 래우
 지금 나 이해하다 [완료]
 이제 나는 이해를 했다.
- b. **ในที่สุด แม่ เชื่อ พ่อ (แล้ว)**
 나이티숫 말 츠어 퍼 래우
 결국 엄마 믿다 아빠 [완료]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믿었다.

11) 태국어의 부동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현승(2004)참조.

12) 결과를 나타내는 부동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Noss, Richard B. (1971), JUNG, Hwan-Seung(1997) 참조.

위의 (19a)에서 **เข้าใจ**카오짜이/는 ‘이해’의 상태가 시작됨을 나타내고 (19b)에서 **เข้า**츠어/도 ‘믿음’의 상태가 시작됨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태성 동사의 경우에는 특정한 상태가 끝났다기보다는 그로 인해 생긴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도 상태성 완료상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태국어의 완료상은 후치조동사 **แล้ว**/래우/에 의해 표현되며 일부 부동사와 일부 상태성 동사 등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완료상을 나타내는 문법적 표지는 **แล้ว**/래우/ 뿐이며 다른 완료상 표현들은 형태적 측면보다는 의미적 측면에서 완료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미완료상의 의미와 형태

미완료상은 완료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완료되지 않은 모든 상적 범주를 일컫는 말이다. 태국어의 미완료상에는 진행상과 반복상 그리고 동시상 등이 있다.

진행상은 하나의 단일한 동작이 일정기간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태국어의 경우 특별한 부사어의 도움 없이 진행상을 나타낼 수 있다.

- (20) a. **ผู้คุม** **กำลัง** **ปิด** **ถนน**
 푸춤 감랑 뻗 타논
 군중 [진행] 막다 길
 군중은 길을 막고 있는 중이다.
- b. **ผู้คุม** **ปิด** **ถนน** **อยู่**
 푸춤 뻗 타논 유
 군중 막다 길 [진행]
 군중은 길을 막고 있다.

c.	ผู้ชุมนุม	กำลัง	ปิด	ถนน	อยู่
	푸춤눔	깜랑	뻬	타논	유
	군중	[진행]	막다	길	[진행]

군중은 길을 막고 있는 중이다.

위의 예문 (20a)는 전치 조동사 กำลัง/깜랑을 사용하여 진행상을 나타낸 예이며 문장 (20b)는 후치 조동사 อยู่/유를 사용하여 진행상을 표현한 예이다. 그리고 (20c)는 두 가지 조동사 모두를 사용한 กำลัง...อยู่/깜랑...유/구문이다. 이처럼 태국어에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문법적 표지가 있다. 그러나 동사들 중에서 순간성 동사 또는 상태성 동사는 진행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

(21) a.	*ผู้ป่วย	กำลัง	ตาย	อยู่
	푸뿌어이	깜랑	따이	유
	환자	[진행]	죽다	[진행]

환자는 죽고 있다.

b.	*ฉัน	กำลัง	รู้	เรื่องนี้
	찬	깜랑	루	르엉니
	나	[진행]	알다	일-이

나는 이 일을 막 알고 있다.

위의 문장 (21a)는 ตาย/따이라는 순간성 동사를 กำลัง...อยู่/깜랑...유/ 라는 진행상 표지와 함께 사용하여 비문이 되었으며 문장 (21b)는 รู้/루라는 상태성 동사를 진행상 표지 กำลัง/깜랑과 함께 사용하여 역시 비문이 되었다.

반복상은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동작이 최소한 두 번 이상 반복하여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미완료상의 한 부류이다. 태국어의 반복상은 전치조동사 มัก/막 또는 มักจะ/막짜에 의해 표현된다.

- (22) a. เดือนที่แล้ว เขามักตื่นแต่เช้า
 드연티래우 카오 막 뜰 때차오
 지난 달 그 [반복] 일어나다 아침일찍
 지난 달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곤 했다.
- b. เดือนนี้ฝนมักจะตก
 드연니 폰 막짜 푹
 이달 비 [반복] 떨어지다
 이번 달은 비가 오곤 한다.
- c. *อาทิตย์หน้าฉันมักจะทำงานดี
 아탓나 찬 막짜 탐응안 득
 다음주 나 [반복] 일하다 밤늦게
 다음 주 나는 밤늦게 일을 하곤 할 것이다.

위의 문장 (22a)는 전치조동사 **มัก**/막이 과거시간부사어와 함께 사용되어 과거에 되풀이하여 일어난 반복상의 의미를 나타내며 문장 (22b)는 전치조동사 **มักจะ**/막짜가 현재시간부사어와 함께 사용되어 현재 되풀이되어 일어나는 반복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22c)에서는 전치조동사 **มักจะ**/막짜가 미래시간부사어와 함께 사용되어 비문이 되었다. 이는 태국어의 전치조동사 **มัก**/막 또는 **มักจะ**/막짜가 미래시간 부사어와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에 되풀이 되어 일어나는 미래 반복상의 의미는 부사어에 의존하여 나타낼 수 밖에 없다.

- (23) ปีหน้าเราจะพบกันบ่อยๆ
 뻐나 라오 짜 품깐 버이버이
 내년 우리 [미래] 만나다 자주
 내년엔 우리는 자주 만날 것이다.

위의 예문 (23)에서는 미래시제 조동사 **จะ**/짜와 빈도부사어 **บ่อยๆ**/버이버이가 사용되어 미래 반복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반복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빈도부사어에는 **บ่อย**/바이바이/ **เป็นประจำ**/벤쁘라짚/ **ทุกวัน** 특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반복상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는 동작성 동사에 한정된다. 상태성 동사의 경우 반복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

- (24) ***ผมหญิง** **ผม** **มักจะ** **ยาว**
 솜잉 폼 막짜 야우
 솜잉 머리 [반복] 길다
 솜잉은 대개 머리가 길곤 한다.

위의 문장 (24)에서는 **มักจะ**/막짜/라는 반복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ยาว**/야우/라는 상태성 동사와 어울리지 못하므로 비문이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태국어의 반복상에는 일정한 문법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태국어에서 반복상은 상범주라고 보기 어렵다. **มัก**/막/ 또는 **มักจะ**/막짜/와 같은 조동사와 빈도부사 등이 결합하여 단지 의미적으로 반복상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미완료상의 의미적 하위범주로 여길 수 밖에 없다.

동시상은 동사가 표현하는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태국어의 경우에 동사후행어 **ไป**/빠이/가 동사와 결합하여 나타낸다.¹³⁾

- (25) a. **เมื่อคืน** **แม่** **ล้างจาน** **ไป** **คุย** **ไป**
 으어큰 때 량참 빠이 쿠키 빠이
 어제밤 엄마 설거지하다 가다 이야기하다 가다
 어제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다.

13) 이때 선행동사가 타동사인 경우에 동사후행어 **ไป**/빠이/는 선행동사의 목적어 다음에 위치한다.

b.

ขณะนี้	พ่อ	อ่าน	หนังสือ	ไป	พูด	ไป
카나니	파	안	낭쓰	빠이	풋	빠이
지금	아빠	읽다	책	가다	말하다	가다

 지금 아버지는 책을 읽으며 말하신다.

c.

ปีหน้า	ฉัน	จะ	เรียน	ไป	ทำงาน	ไป
빼나	찬	짜	리안	빠이	탐응안	빠이
내년	나	[미래]	배우다	가다	일하다	가다

 내년엔 나는 일하면서 공부할 것이다.

위의 예문은 각각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시간의 동시상을 나타내고 있다. (25a)에서는 *ล้างจาน/ล้าง*과 *คุย/คุย* 동작이 과거에 동시에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25b)에서는 *อ่าน/안*과 *พูด/풋* 동작이 현재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6c)에서는 *เรียน/리안*과 *ทำงาน/탐응안* 동작이 동시에 일어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태국어의 동시상은 그에 대응하는 문법적 틀을 가지고 있다.

태국어의 상은 이제까지 다루어온 바와 같이 완료상과 진행상 그리고 동시상은 각기 그에 대응되는 문법적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반복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하다. 따라서 완료상과 진행상 그리고 동시상은 상의 문법범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반복상은 단지 의미적으로 미완료상의 하위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간추려 도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26) 상적 의미 표현과 동사구의 구조

상	상시간	동사구 구조		
완료	현재	[(현재)]+Verb+แล้ว/결과/방향가능부동사		
	과거	[과거]+ Verb +แล้ว/결과/방향가능부동사		
	미래	[미래]+ Verb +แล้ว/결과/방향가능부동사		
미완료	진행	현재	([현재])+กำลัง+ Verb ([현재])+동사+อยู่ ([현재])+กำลัง+ Verb +อยู่	
		과거	[과거]+กำลัง+ Verb [과거]+ Verb +อยู่ [과거]+กำลัง+ Verb +อยู่	
		미래	[미래]+กำลัง+동사 [미래]+ Verb +อยู่ [미래]+กำลัง+ Verb +อยู่	
	반복	현재	([현재])+มัก(จะ)+ Verb +([빈도])	
		과거	[과거]+มัก(จะ)+ Verb +([빈도])	
		미래	[미래]+จะ+ Verb +([빈도])	
	동시	현재	([현재])+ Verb1+ ไปด้วย - Verb2+ ไปด้วย	
		과거	[과거]+ Verb1+ ไปด้วย - Verb2+ ไปด้วย	
		미래	[미래]+ Verb1+ ไปด้วย - Verb2+ ไปด้วย	

IV. 양상(modal)

양상은 인식양상(epistemic modality)과 의무양상(deontic modality)으로 대별된다. 인식양상은 화자의 지식의 정도를 표하는 것이며 의무양상은 사회적 용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Saeed 1997:126-128). 태국어에서 양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구의 구조에 대해서는 풍씨(Pongshri, Lekawatna (1969:68-71)에 의해 부분적으로 기술된 바 있다. 본장에서는 태국어 양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구의 구조에 대해 보다 세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인식양상

인식양상은 화자의 지식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가능성’이나 ‘필요성’ 또는 ‘예측’ 등과 같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태국어에서 인식양상은 주로 양상조동사나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동사에 의해서 표현된다.

1) 가능성(possibility)

태국어에서 가능성의 의미는 부동사 **ได้/다이**/ **เป็น/뻐**/ 또는 **มีโอกาสจะ/미오갓짜** 구문으로 표현된다. 다음은 그 예이다.

(27) **เขา พูด ภาษาไทย ได้**
 카오 풋 파싸타이 다이
 그 말하다 태국어 [가능]
 그는 태국어를 할 수 있다.

(28) **ฉัน ว่ายน้ำ เป็น**
 찬 와이남 뻐
 나 수영하다 [가능]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다.

(29) **มี โอกาส จะ สบปรก**
 미 오갓 짜 쑉까쁘룩
 있다 기회 [미래] 더럽다
 더러워질 수 있다.

2) 필요성(necessity)

태국어에서 필요성의 의미는 전치조동사 조동사 *ควร/쿠언*이 *จะ/짜*와 결합된 형태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จำเป็น/짬뽕* 구문에 의해서 표현될 수도 있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0) เรา ควร จะ ไป พบ ผู้จัดการ
 라오 쿠언 짜 빠이 품 푸짚깐
 우리 [필요] [미래] 가다 만나다 지배인
 우리는 지배인을 만날 필요가 있다.

- (31) คุณภาพ ไม่ จำเป็นต้อง ดี มาก
 쿤나팍 마이 짬뽕땡 디 막
 품질 [부정] 필요하다 좋다 아주
 품질은 아주 좋을 필요는 없다.

3) 예측(prediction)

태국어에서 예측 또는 추측의 의미는 전치조동사 *อาจจะ/앗*이나 *คง/콩*이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 *จะ/짜*와 결합된 형태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คาดว่าจะ/앗*구문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 (32) วันนี้ฝน อาจจะ ตก
 완니 폰 앓짜 푹
 오늘 비 아따 떨어지다
 오늘 아마 비가 올 것이다.

- (33) เขาคงจะ รู้แล้ว
 카오 꺀 콩짜 루 래우
 카오 -도 아마 알다 [완료]
 그도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34)	คาด	ว่า	จะ	สอบ	ผ่าน
	갓	와	짜	쌌	판
	예측하다	[보문소]	[미래]	시험	합격하다
	시험에 합격하리라고 예상한다.				

위의 예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국어에서 의무양상의 의미는 대부분 조동사나 일부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동사에 의해 표현된다. 이때 동사는 특별한 제약이 없이 동작성 동사나 상태성 동사 모두 올 수 있다.

2. 의무양상

의무양상은 ‘의무’나 ‘허락’ 또는 ‘의지’ 등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Saeed 1997:126-128). 태국어에서 인식양상은 주로 양상조 동사에 의해서 표현된다.

1) 의무(obligation)

태국어에서 의무의 의미는 전치조동사 ต้อง/땡에 의해서 표현된다. 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35)	พรุ่งนี้	ต้อง	มา	อีก	ไหม
	프룽니	땡	마	익	마이
	내일	[의무]	오다	또	[의문]
	내일 꼭 외야만 합니까?				

2) 허락(permission)

태국어에서 허락의 의미는 부동사 **ได้**/다이/ 또는 **สัญญาว่าจะ**/싼야와짜/**ตกลงใจจะ**/똑롱짜이짜/ 등의 구문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다음은 그 예를 보인 것이다.

- (36) **กลับบ้าน ได้ แล้ว**
 끝잡반 다이 래우
 귀가하다 [가능] [완료]
 집에 가도 됩니다.
- (37) **สัญญา ว่า จะ ให้ เงิน 2 หมื่น บาท**
 싘냐 와 짜 하이 응언 썽른 밧
 약속하다 [보문소] [미래] 주다 돈 2 만 밧트
 2 만 밧트를 줄 것을 약속한다.
- (38) **ตกลงใจ จะ ให้ มา ทำงาน**
 똑롱짜이 짜 하이 마 탐응안
 합의하다 [미래] [보문소] 오다 일하다
 와서 일하게 하시겠습니까?

3) 의지(volition)

태국어에서 의지의 의미는 전치조동사 **จะ**/짜/ 또는 **ตัดสินใจ**/땃싘짜이/나 **ตกลงใจ**/똑롱짜이/ 같은 동사가 **จะ**/짜/와 결합된 형태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9) **ฉัน จะ สอบ ผ่าน ให้ได้**
 찬 짜 썽 판 하이다이
 나 [미래] 시험 통과하다 꼭
 나는 꼭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40) **ตัดสินใจ จะ แต่งงาน กับ เขา**
 päätettiin **짜** **แต่งงาน** **กับ** **เขา**
 결정하다 [미래] 결혼하다 -와 그
 그와 결혼하겠다.

(41) **ตกลงใจ จะ กู้ เงิน มา ใช้จ่าย**
 ตกลงใจ **짜** **กู้** **เงิน** **มา** **ใช้**
 뜻중짜이 짜 꾸 응언 마 차이
 합의하다 [미래] 빌다 돈 오다 쓰다
 돈을 빌어 와 쓰기로 했다.

위의 예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국어에서 의무양상의 의미는 대부분 조동사나 일부 일반 동사 구문에 의해 표현된다. 이때 동사는 동작성 동사만이 올 수 있으며 상태성 동사는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태국어의 양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구의 구조를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42) 양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구의 구조

양상의 분류	의미	동사구 구조
인식양상	가능	Verb + ได้/เป็น มีโอกาสจะ + Verb
	필요	ควรจะ/จำเป็น + Verb
	예측	อาจจะ/คงจะ/คาดว่าจะ + Verb
의무양상	의무	ต้อง + Verb
	허락	Verb + ได้ สัญญาว่าจะ/ตกลงจะ + Verb
	의지	(ตัดสินใจ/ตกลงใจ)+จะ + Verb

V. 목적어의 형태

태국어의 타동사 구문에서 나타나는 목적어는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본장에서는 타동사 구문의 동사구에서 나타나는 목적어의 형태와 동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43) a. **เราจะ อ่าน หนังสือ**
 위라 안 낭쓰
 위라 읽다 책
 위라는 책을 읽는다.
- b. **ฉัน ชอบ ว่ายน้ำ**
 찬 첩 와이남
 나 좋아하다 수영
 나는 수영을 좋아한다.
- c. **เขา หยุด ทำงาน**
 카오 윗 탐응안
 그 쉬다 일하다
 그는 일을 쉬었다.

위의 예문 (43a)는 일반 타동사문으로 목적어가 명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문장 (43b)와 (43c)는 동사 뒤에 나타나는 목적어는 일차적으로 동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문장 안에서 목적어로 기능하기 때문에 명사구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태국어에서는 동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명사의 기능을 하는 동명사가 목적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다.

- (44) a. **ผม เห็น เขา กำลัง สอน**
 폼 헨 카오 깜랑 썬
 나 보다 그 [진행] 가르치다
 나는 그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 b. **แม่ ดู เด็ก นอน**
 매 두 텍 년
 엄마 보다 아이 자다
 어머니는 아이가 자는 것을 본다.

위의 예문 (44a)과 (44b)에서는 목적어가 절로 나타난 경우이다. 이때 타동사와 목적절 사이에는 어떠한 접속사도 없다. 이렇게 아무런 접속사

없이 목적어가 절로 나타나는 경우 에 타동사는 지각동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 (45) a. แม่ ให้ น้อง กวาด บ้าน
 매 하이 녕 꺾 반
 엄마 [사동] 동생 쓸다 집
 어머니는 동생에게 집안을 쓸게 했다.
- b. ผู้ร้าย ถูก ตำรวจ จับ
 푸라이 툑 팜루엇 잡
 범인 [수동] 경찰 잡다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다.

위의 예문 (45a)와 (45b)는 목적어가 절로 나타나는 또 다른 예이다. 예문 (45a)는 사동화 타동사 ให้/하이 가 절을 목적어로 취하면서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통사적 사동문이며 (45b)는 수동화 타동사 ถูก/툑이 역시 목적어를 절로 취하면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통사적 수동문이다.

- (46) a. ฉัน เข้าใจ ที่ เขา พูด
 찬 카우짜이 티 카오 푹
 나 이해하다 [보문소] 그 말하다
 나는 그가 말한 것을 이해한다.
- b. ฉัน ถาม แดง ว่า จะ มา ไหม
 찬 탐 땡 와 짜 마 마이
 나 묻다 땡 [보문소] [미래] 오다 [의문]
 나는 땡에게 올 것인지를 물었다.
- c. เขา ต้องการ ให้ ฉัน นั่ง
 그 원하다 [보문소] 나 앉다
 그는 내가 앉기를 원했다.

위의 예문 (46a)는 **ให้**타리는 보문소가 사용된 타동사 구문이며 (46b)는 **ให้**와리는 보문소가 사용된 이중 목적어 구문이다. 그리고 (46c)는 **ให้**하이리는 보문소가 사용된 타동사 구문이다. 이처럼 태국어에서 목적어를 절로 취할 때 사용되는 보문소에는 **ให้**타리/**ให้**와리/**ให้**하이리가 있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태국어의 동사구의 구성성분을 파악하고 형태적 구조와 의미적 구조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태국어의 동사구는 머리동사와 동사 선행요소, 동사 후행요소, 그리고 수식어구의 결합형태로 이루어진다.

(2) 태국어의 시제는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시제로 삼분되는데 현재시제는 동사의 단독 사용으로 나타내며 과거시제는 머리동사와 후치조동사 **แล้ว**/래우의 결합, 그리고 미래시제는 전치조동사 **จะ**/짜와 머리동사의 결합형태로 나타낸다.

(3) 태국어의 상적 의미는 완료시제의 경우에는 머리동사와 후치조동사 **แล้ว**/래우의 결합에 의해 표현되며 미완료 시제는 진행상과 반복상, 동시상의 세가지가 있는데 진행상은 전치조동사 **กำลัง**/깜랑/과 후치조동사 **อยู่**/유가 머리동사와 결합한 형태로 표현된다. 그리고 반복상에 있어서 현재 반복상과 과거 반복상은 전치조동사 **มัก**(จะ)/막짜가 머리동사와 결합한 형태로 표현되는 반면에 미래 반복상의 경우에는 머리동사와 빈도부사에 의해 표현된다. 동시상의 경우에는 각각의 머리동사에 동사 후치어 **ไป**/빠이가 결합하여 나타낸다.

(4) 태국어에서 양상의 의미는 대부분은 그 의미와 관련된 전치조동사와 머리동사의 결합에 의해 표현되며 일부 부동사가 사용된 동사구문으로도

표현되기도 한다. 한편 타동사 구문에서 목적어의 형태는 명사구의 성격을 띠지만 동사의 성격에 따라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기도 한다. 사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사동화 타동사 *ให้*하이/ 와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수동화 타동사 *ถูก*톡은 절을 목적어로 취하고 일반 타동사가 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에는 *ให้*티/ *รับ*와 *ให้*하이/ 등의 보문소에 의해 명사절이 유도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동사구 구조에 대한 연구는 태국어라는 자연언어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문법적 표지가 없는 태국어의 특성상 동사구가 갖는 형태적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의미구조를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태국어의 동사구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태국어 학습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므로 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태국어를 좀더 깊고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태국어 교재 개발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태국어, 동사구, 태국어의 시제, 태국어의 양상.

참고문헌

- 김지은. 1996.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시종. 1995. “한국어 보조용언 범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정수. 1991. 『현대 한국어 문법연구의 개관』. 서울: 한국문화사.
- _____. 1996. 『현대국어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부.
- 정환승. 2000. “태국어 haj 의 위치와 문법적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태국학회논문총 8:37-76.
- _____. 2002. 『현대태국어문법론』. 서울: 삼지사.
- _____. 2004. “태국어 부동사에 관한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국제 학술대회 발표집』. 131-142.
- JUNG, Hwan-Seung. 1997. “กิริยาบอกรผลในภาษาไทย” 『동남아연구』 6:
219-242,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Kingkam, Thepkanjana. 1986.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Thai”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 Lyons, J.. 1968, 1972.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
Press.
- Noss, Richard B.. 1971. *Thai Reference Grammar*, Krusapa Ladprao.
- Pongshri, Lekawatna. 1969. *A comparative study of English and Thai*, Univ. of
Michigan.
- Saeed, John I. 1997. *Semantics*, Blackwell Publishers Inc. pp125-133.
- Salee, Sriphen. 1982. *The Thai Verb Phrase*.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 กำชัย ทองหล่อ. หลัก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 문법]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
รวมสาส์น. ๒๕๔๐
- นวรรณ พันธเมธา. ไวยากรณ์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 문법]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
รุ่งเรืองสาส์นการพิมพ์. ๒๕๒๗
- _____ "กริยาซ้อน" [복합동사] สตรีสาร ๓๙(๓๘) : ๑๐๔-๑๐๕
ธันวาคม, ๒๕๒๙
- บรรจบ พันธเมธา. ลักษณะ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의 형태] กรุงเทพฯ :
โรงพิมพ์มหาวิทยาลัยรามคำแหง. ๒๕๒๘
- พระยาอุปกิตศิลปสาร. หลัก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 문법]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ไทยวัฒนพานิช. ๒๕๓๓
- วิจินต์ ภาณุพงศ์. โครงสร้างภาษาไทย ระบบไวยากรณ์. [태국어 문법]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รามคำแหง. ๒๕๒๗
- อุดม วโรจน์สิขิตดิษฐ์. ภาษาศาสตร์เบื้องต้น. [언어학 입문] กรุงเทพ-
มหานคร : โรงพิมพ์ครูสภา. ๒๕๑๓
- พจนานุกรม ฉบับราชบัณฑิตยสถาน [태국어 사전] พ.ศ. ๒๕๒๕
- จ้ออน หาระบุตร. "การศึกษาความสัมพันธ์ของคำกริยา ๒ คำที่เรียงกัน
ในประโยค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 문장에서 2개 동사의 상호관계]
วิทยานิพนธ์ปริญญาโทมหาบัณฑิต ภาควิชาภาษาไทย บัณฑิตวิทยาลัย
จุฬาลงกรณ์มหาวิทยาลัย, 2520
- ชัชวดี ศรีลัมพ์. "การศึกษามโนทัศน์ของคำว่า 'เข้า' ." [태국어 동사 '카
오' 연구] วิทยานิพนธ์ปริญญาโทมหาบัณฑิต ภาควิชาภาษา ศาสตร์
บัณฑิตวิทยาลัย จุฬาลงกรณ์ มหาวิทยาลัย, 2538
- วิภา วงศ์สันติวินช. "คำกริยากรัดในภาษาไทย" . [태국어의 사동사에 대한
연구] วิทยานิพนธ์ปริญญาโทมหาบัณฑิต ภาควิชา ภาษา ศาสตร์
บัณฑิตวิทยาลัย จุฬาลงกรณ์ มหาวิทยาลัย, 2526

- สุดา รังกุพันธุ์. “กริยารอง ไป และ มา ใน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의 부동사 ‘ไป-
이’와 ‘มา’] วิทยาลัยพนธ์ปริญญามหาบัณฑิต ภาควิชาภาษาศาสตร์
บัณฑิตวิทยาลัย จุฬาลงกรณ์ มหาวิทยาลัย, 2535
- โสภารรณ แสงไชย. “กริยารอง ขึ้น และ ลง ใน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의 동사
‘ขึ้น’과 ‘ลง’] วิทยาลัยพนธ์ปริญญามหาบัณฑิต ภาควิชา ภาษาศาสตร์
บัณฑิตวิทยาลัย จุฬาลงกรณ์มหาวิทยาลัย, 2537
- อรัทัย เดชธำรง. “หน้าที่ของคำกริยา ให้ ใน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 동사 ‘ให้-
이’] วิทยาลัยพนธ์ปริญญามหา บัณฑิต ภาควิชาภาษาไทย
บัณฑิตวิทยาลัย จุฬาลงกรณ์มหาวิทยาลัย, 2513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of verb phrase in Thai

JUNG, Hwan-Se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interrelations between semantic structure and syntactic structure of Thai verb phrase. Thai verb phrase consist of head verbs, front and rear constituent of verb and combinations of modifiers. The tense in Thai is divided into present, past and future. Present tense is shown by the single use of verbs; combination of rear auxiliary verb /laew/ and head verb is used for past tense; combination of front auxiliary verb /ca/ and head verb is used for future tense. Aspectual meaning of Thai is expressed through combination of head verb and rear auxiliary verb /laew/ for the perfect tense. There are 3 aspects in imperfect tense, which are progressive, iterative and simulative. Progressive aspect is expressed by combining front auxiliary verb /kamlang/ and rear auxiliary verb /ju/ with head verbs. For iterative aspect, present and past iterative aspects are expressed through combination of front auxiliary verb /makca/ and head verbs, but future iterative aspect is expressed through head verbs and adverbs of frequency. Rear verb /paj/ is combined with each head verbs to express simulative aspect. Meaning of modals are usually expressed by combining head verbs and front auxiliary verb related to the meaning and also by verb constructions using

part of second verbs in Thai language. On the other hand, object forms assume the characteristics of a noun phrase in transitive verb construction but take gerund as objec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verb. Causative transitive verb /haj/ and passive transitive verb /thuk/, which express the meaning of cause and passivity, take clauses as objects. When normal transitive verbs take clauses as objects then it will have the structure of noun clause induced by complementizers like /thi/, /wa / and /haj/.

Key words: Thai, verb phrase, tense in Thai, modal in Thai.